우리는 꽃들의 이름을 잊었다.

심규원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던 길이었다. 내가 사는 곳은 도시계획으로 지어진 지역의 새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 주위에 깔끔하게 공원을 조성해 뒀고 그곳에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 놓았다. 공원 주위에는 예쁜 들꽃들이 많이 보였다. “와, 이쁘다!” 내 탄성을 들은 어머니는 그 꽃을 쳐다보았고 곧 꽃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들꽃의 이름을 알고 계신 어머니가 신기했다.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산책하다 보면 내가 쉽게 밟고 지나치는 작은 들풀과 들꽃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이런 경험은 내가 특별한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은 아니다. 어머니가 식물이나 화초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대화는 나의 다른 경험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대학에 막 졸업한 나는 몇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북 성주에서 몇 달 가량 함께 지내며 밭일도 해보고, 공부도 했던 경험이 있다. 아침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창으로 비추이는 밝은 햇살에 잠을 깨고 밤에는 고라니 소리를 들으면 잠들곤 했다. 종종 친구들과 나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산책을 하며 마을을 돌아보곤 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도시에서는 못보던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예쁜 들풀을 발견하는 날이면 멈추어 서서 그들의 생김새를 열심히 들여다 봤다. 지나치며 보는 것보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들풀은 더 아름다웠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들꽃을 들여다본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한 두번은 그렇게 바라만 보며 감동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몇주가량을 오며가며 보다보니 문뜩 꽃의 이름이 궁금해 졌다. 그 노란꽃은 이름이 뭘까? 그 자그마한 파란색 들꽃은 뭘까? 그리고 스마트기기에 식물도감을 다운받았다. 예쁜 들풀을 발견하는 날이면 들꽃들의 이름을 열심히 찾아 외우곤 했다. 이름을 외우고나면 “꽃 예쁘다”가 아닌 “달맞이 예쁘다”하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식물의 이름을 너무도 모른다는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낀 이후로 때때로 식물도감을 열어서 들꽃들의 이름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듯 하고, 찾아서 알아 뒀던 이름도 거의 다 잊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다 문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들꽃의 이름을 이렇게 모른다는 건 나와 들꽃, 그리고 자연과의 거리가 그만큼이라 말해주는 단서가 아닐까.

이름을 부르는 일은 상호 관계에서 꼭 필요한 행동이다.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것인지, 내 옆의 사람을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나는 자연과의 관계를 잃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달맞이의 이름을 알기 전에는 노란 들꽃은 내게 다 같은 꽃이었으나 그 이름을 알게 된 후부터는 달맞이 꽃을 보면 다른 꽃들과의 분리가 자연히 일어났고 그 꽃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의 젊은 세대는 꽃 이름을 잘 모른다. 도시엔 꽃이 적기 때문이고, 있어도 쳐다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꽃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도시에서 마주치는 작은 들꽃들의 이름을 알게 된다면, 들꽃들은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되지 않을까.